■ 연말 닥친 광주 밤거리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살기 팍팍한데 왜 앞길막나” 호통 결백 주장하다 ‘수배’ 들통 체포도

단속 5일만에 119건 적발

지난 4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 녹색 승합차와 경찰 순찰차 2대가 멈춰섰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이명진(44) 경위는 단속에 앞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 음주운전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경위는 이어 함께 단속에 나선 정민석(40) 경장과 의경 2명을 향해 “사고 위험이 있으니 도주차량은 번호만 적고 무리하게 뒤쫓지 마라”고 주의를 줬다.

서다빈(21)·전시원(21) 상경이 30m 간격으로 배치돼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5분쯤 흘렀을까. 경광봉으로 막아서는 서 상경 앞으로 택배기사가 탄 오토바이가 갑자기 굉음을 울리며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전방에 서있던 정 경장과 서 상경에 의해 도주로가 차단되자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요…”. 음주측정 결과 택배기사 이모(51)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5%. 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이씨는 오토바이에 자물쇠를 채운 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인근 주택가를 향해 걸어갔다.

이씨가 사라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고급 등산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넘긴 김모(61)씨는 경찰관을 향해 “왜 음주단속을 하느냐”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20여분을 버티던 김씨는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측정기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4%.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자 김씨는 “젠장, ××.”이라며 오토바이와 열쇠를 내팽겨 둔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날 밤 11시30분께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톨게이트. 늦은 시각 요금소는 방향별로 1개 차선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다. 단속 경찰관 앞에선 이모(20)씨가 감지기에 숨을 내쉬자 빨간불과 함께 ‘삐’ 소리가 났다.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8%. 이씨는 다행히(?)도 훈방수치가 나오자 승합차 옆에서 초조하게 측정 결과를 지켜보던 친구들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음주단속 도중 수배자가 검거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틀날 새벽 은색 수입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다 긴급체포됐다.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신원조회 과정에서 횡령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4일 밤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인근 도로에서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날 음주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안 그래도 팍팍한데 경찰까지 앞 길을 막느냐?”(50대 남성), “전 원래 술 안 마신단 말이에요”(40대 여성) 등으로 ‘협박형’과 ‘읍소형’ 운전자가 많았다. 간혹 “추운데 고생하신다”는 살가운 말을 전하는 운전자도 눈에 띄었다.

한편 광주경찰은 이달 들어 5일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 62명, 면허취소 57명 등 총 119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

“나무·바위 뒤 피하고 조용히 119에 신고를”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는 침착하게 주위 나무나 바위 뒤로 피하고, 조용히 119에 신고하세요”

도심 내 야생 멧돼지 출현이 빈발해짐에 따라 광주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시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119 구조단과 한국야생동식물협회, 영산강유역환경청, 각 구청과 공동으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홍보 리플릿 7천매를 제작해 각 자치구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시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지역 내 시정홍보 전광판, 지하철 홍보방송 등을 통해서도 주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시가 이처럼 행동요령까지 홍보하고 나서는 것은 지난달 광산구 월곡동과 운남동에서 새끼멧돼지가 잇따라 나타나 관할 소방서가 포획에 나서는 등 도심속 멧돼지 출현이 계속되는데다, 겨울철이 야생 멧돼지 번식기간이어서 어느 때보다 성질이 난폭해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는 소리치거나 등을 보인 채 달아나지 말고, 주행중엔 경적을 울리지 말고 시동을 끈 채 사라질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옛길서 조난 당하면 ?

“안내판 번호 보고 119에 신고하세요”

무등산 옛길에서 조난 등 사고를 당한 경우 ‘옛길 안내표지판’을 이용하면, 119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6일 “무등산 옛길에서 산악사고를 당했을 때 표지판 번호와 명칭이 명기된 주변 안내표지판을 이용해 119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 파악 시간이 단축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등산 옛길에는 1구간에 26개(1번~26번), 2구간에 14개(27번~40번) 등 안내 표지판 40개가 300m마다 설치돼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말 119 종합상황실 직원들이 직접 무등산 옛길 전 구간을 탐방해 휴대전화 통화 장애지역과 안내표지판 설치장소를 확인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난당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이용해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신고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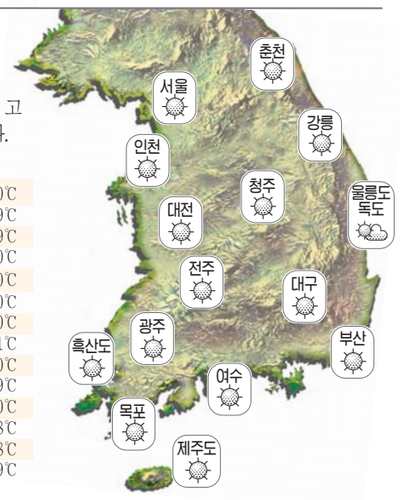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7분 / 해짐 17시 20분 — 달뜸 22시 52분 / 달짐 11시 30분

대설(大雪)인데…

중부지방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광 주	맑 음	-2/10℃
목 포	맑 음	0/9℃
여 수	맑 음	1/9℃
완 도	맑 음	1/10℃
구 례	맑 음	-5/10℃
해 남	맑 음	-4/10℃
장 흥	맑 음	-5/10℃
고 흥	맑 음	-3/11℃
순 천	맑 음	-2/10℃
영 광	맑 음	-3/9℃
진 도	맑 음	-2/10℃
전 주	맑 음	-4/8℃
남 원	맑 음	-7/8℃
흑산도	맑 음	4/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5:27	10:36
	18:11	23:23
여수	00:09	06:15
	12:50	19:02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 씨						
최저/최고	0/12	4/10	6/11	6/12	4/11	3/10

순천만 흑두루미 크게 늘었다

올 361마리 관찰 … 1996년 70마리서 해마다 증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 11월 중순과 하순 순천만에서 월동(越冬)중인 두루미의 수는 각각 361마리와 350마리로 관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230마리, 235마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1월 중순 순천만에서 관측되는 두루미는 400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순천시는 내다봤다. 순천만 두루미 수는 1996년 70여마리에서 2006년 219마리, 2007년 229마리까지 매년 서서히 늘다가 작년 339마리로 급증했다.

이처럼 두루미 수가 늘어난 것은 순천시가 2007년부터 서식지와 습지에 대한 환경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주변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서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